

중기 71% “해외 출장 후 2주 격리가 큰 부담”

중소기업의 3분의 2는 해외출장 후 입국 시 2주간 자가 격리가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출입국 제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해외출장 시 가장 큰 애로 사항(복수응답)으로 ‘국내 입국 시 2주간 자가 격리(71%)’를 꼽았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직원 출장 기피(37.7%)’, ‘정기 운항 항공편 부족(22.3%)’, ‘해외 출입국 규제에 대한

격리 면제 제도는 기업 22.7%만이 인지하고 있어

출상 사유로 ‘신규 바이어 발굴 마케팅’이 가장 많아

정보 부족(21.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입국 시 자가 또는 시설 격리(14일)가 원칙이나, ▲중요한 사업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의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격리 면제 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22.7%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중소기업 84.0%는 해외 출장을 가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출상 경험

이 있는 기업의 출장 사유(복수응답)는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마케팅’이 43.8%로 가장 많았고 ‘해외전시 참가(29.2%)’, ‘수출 제품 세무 사항 협의(12.5%)’, ‘수출 제품 현장설치 및 시운전(10.4%)’ 등이 뒤를 이었다.

출입국 제한 관련 정부 정책 활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27.0%로 나타났다. 활용 정책(복수응답)으로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92.6%)’, ‘기업인

패스트트랙(6.2%)’, ‘전세기 편성(2.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외 출입국 제한 관련 정부 정책 활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정보 부족으로 접근성이 낮음(55.7%)’이 가장 많았으며, ‘복잡한 서류 절차(19.3%)’, ‘통합된 창구 부재(6.7%)’, ‘신속하지 못한 정책 집행(6.0%)’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출입국 제한 관련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출장 후 입국 시 기업인 14일 자가 격리 면제(56.3%)’를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비대면 수출 사업 지원(45.0%)’, ‘해외 출입국 제한관련 실

시간 정보 제공(27.7%)’, ‘자가 격리 시 비용 지원(2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출입국 제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격리 면제 제도 도입,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하고 제도 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인 격리 기간 단축, 위생도구가 낮은 국가 방문 후 입국 시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 면제 등 격리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공인인증서 사용 불편함 덜어드려요

전북은행, 모바일 펀드투자 서비스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6일 모바일 펀드투자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이번 모바일 펀드투자 서비스 출시로 어플리케이션 설치와 공인인증서 사용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기존 전북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예금계좌신규부터 펀드투자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원스탑(ONE-STOP)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기존 전북은행을 이용하는 중장년층은 물론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의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신규고객이 유입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펀드투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북은행 대표펀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착한펀드’ 미래에셋 상생플러스 증권지투자신탁(채권혼합), 글로벌 언택트 산업에 투자하는 한화 글로벌 언택트지투자신탁(주식) 등의 펀드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은행은 이번 서비스 도입과 함께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현명한 펀드투자 이벤트를 11월까지 진행 중이다. /김윤상 기자

전기안전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안전경영 체계 공신력 확보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지난 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 KOSHA-MS는 기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에 국제표준(ISO 14001)을 반영한 새 안전보건 규격으로, 2019년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정비하고 세부실행 매뉴얼과 지침을 규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하며 안전경영 체계에 대한 공신력을 꾸준히 확보해왔다.

조성완 사장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국민과 근로자 안전을 위한 새로운 환경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더욱 확고히 뿌리내려, 단 한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는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촌진흥청은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6일 농촌진흥청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ITCC) 국제영상회의실에서 ‘스마트팜 빅데이터 설명회’를 열었다.

농업 빅데이터 활용 기술 창업 적극 지원

농진청 ‘스마트팜 빅데이터 설명회’... 토마토 등 5품목 공개 데이터 구조 등 설명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6일 농촌진흥청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ITCC) 국제영상회의실에서 ‘스마트팜 빅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터넷 화상시스템(ZOOM)을 활용한 온라인과 오프라인(현실공간) 방식을 병행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스마트팜 기업, 민간 컨설팅(상담) 업체,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농진청은 청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생산성 향상 모델을 설

명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섹션에서는 농진청 관계자가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양동, 한우 등 5품목에 대한 공개 데이터 구조, 생육 단계별 최적 환경설정 모델 등을 설명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섹션에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나와 빅데이터·모델 활용 기업체의 사업 가능 분야, 기술이전 방식 등을 소개했다. 또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일반 기업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생육데이터 공유 등의 어려움과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사업 활성화 방안

을 논의했다.

농진청은 스마트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시설원에 10개 품목 200 농가의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했고,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빅데이터 수집 분야를 노지, 과수, 축산으로 확대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스마트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인증서를 들고 있는 조성완 전기안전공사 사장(왼쪽)과 류인희 안전이사(오른쪽).

올 새만금 노마드 축제, 랜선으로

개발청, 12월 15일까지 총 5회 일정으로 진행

회차별로 사전 참가접수... 16일 ‘첫 페스티벌’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새만금 일원에서 ‘제4회 새만금 노마드(NOMAD: 유목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랜선 축제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의 피로해소와 위안을 전하는 치유콘텐츠 등 차별화되고 안전한 행사들로 기획했다.

노마드 & 랜선 치유콘텐츠는 총 5회 일정으로 진행되며 회차별로 사전 참가접수(랜선 참가)를 받는다.

사전 참가접수는 회차별 150명씩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접수를 하지 못한 사람은 줌프로그램(화상회의 프로그램) 참여는 불가능하나 당일 유튜브 생방송에는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 모인문화 플랫폼인 온오프믹스(www.onoffmix.com)를 통해 받으며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누리집(www.nomadfestival.co.kr)에서 참가신청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노마드 페스티벌 운영사무국(063-241-0882)으로 하면 된다.

이번 페스티벌의 주요 콘텐츠는 노마드 랜선 축제(노마드 강연, 홀캠프 축제, 할로윈축제, 노마드 끼 경연대회), 치유콘텐츠(유명 음악인 공연 5회), 유튜브 캠프축제(전문 유튜버의 새만금에서의 간접캠핑 공유), 마인크래프트 축제 맵 공모전(노마드 축제 지도 제작), 브이로그(영상일기) 챌린지 공모전(새만금지역 여행 영상물 제작) 등으로 구성했다.

‘노마드 랜선&치유콘텐츠’는 새만금

을 무대로 매주 유명 음악인의 공연과 함께 랜선 참가자들이 안방에서 다양한 콘텐츠에 참여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16일 노마드 페스티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환영 인사와 함께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착공과 무재해 공사를 기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문을 연다.

‘유튜브 캠프축제’는 새만금의 특별한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온라인 체험으로 캠핑전문 유튜버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 맞춰 새만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캠핑의 매력을 소개한다.

‘마인크래프트 축제 맵 공모전’은 새만금에서 내가 꿈꾸는 노마드 페스티벌을 주제로 축제 지도를 구현해 새만금의 넓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브이로그(영상일기) 챌린지 공모전’은 새만금을 경유해 인근 지역(군산, 김제, 부안)을 여행하는 참가자들의 영상일기를 통해 생생한 체험을 공유하고 새만금 관광의 매력을 보여주 고자 기획했다.

특히 마인크래프트 축제 맵 공모전과 브이로그 챌린지 공모전은 심사를 통해 뽑힌 작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호열 개발사업국장은 “새로운 일상이 열린 이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이 랜선 축제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새만금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호성 기자

새만금개발청,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 본격 추진

새만금개발청은 국내 최대 규모인 3GW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센터 운영을 담당할 위탁 운영기관을 오는 12월까지 (재)전북테크노파크(TP)를 통해 선정받는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양성, 장비구축 및 운영, 최신 기술지원 등 전문 역량이 필요한 사업으로 신청자격을 전북도 내 대학으로 한정했다.

이 사업은 향후 4년간 약 115억 원(민자 별도)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설치·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새만금청은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 위해 그동안 전북도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지속해서 구상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연간 300명씩 4년간 약 1,20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유호성 기자

24시간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 ‘내 곁에 국민연금’

누적 다운로드 200만 돌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이 9월 말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 200만 건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내 곁에 국민연금은 지사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지 국민연금 납부내역 및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 급여 청구, 수급자 계좌변경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공단의 모바일 앱으로, 모바일 중심의 정보기술 변화와 지사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2018년 출시됐다.

이 사업은 향후 4년간 약 115억 원(민자 별도)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설치·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새만금청은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 위해 그동안 전북도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지속해서 구상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연간 300명씩 4년간 약 1,20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유호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이 9월 말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 200만 건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내 곁에 국민연금은 지사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지 국민연금 납부내역 및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 급여 청구, 수급자 계좌변경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공단의 모바일 앱으로, 모바일 중심의 정보기술 변화와 지사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2018년 출시됐다.

이 사업은 향후 4년간 약 115억 원(민자 별도)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설치·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새만금청은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 위해 그동안 전북도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지속해서 구상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연간 300명씩 4년간 약 1,20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유호성 기자

전북FTA활용지원센터

이달 중 FTA 무역 실무 교육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를 중심으로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에서 운영하는 전북FTA활용지원센터(이하 전북FTA센터)는 10월 중 세 차례(13일, 16일, 21일)에 걸쳐 FTA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이는 13일에는 한미 FTA, 21일에는 한-베 FTA와 관련한 활용사례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활용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경진원 김민태 관세사가 강의한다.

16일에 진행되는 2020 FTA 4차 시장 개척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앞서 3회에 걸쳐 진행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의 연장선이다. 기초교육 2회(수출 초보 기업 시장개척 및 바이어 발굴, 수출/수입 통관과 심화교육 1회(무역대금 결제방식, 선적서류 작성 실무)는 지난 5월과 7월, 9월에 각각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회 차에는 무역 계약 체결 및 계약 조항, 정형거래 조건 INCOTERMS 2020, 무역계약 체결 유의사항 및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해 무역 아카데미 초빙교수인 염홍기 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ta.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711-2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진안 부귀

버섯마루 신축사업장 방문

장기요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6일 진안군 부귀면에 소재한 버섯 재배농가 농업회사법인 버섯마루(유)대표자 김병수) 신축사업장을 현장 방문했다.

장 본부장과 김병수 대표는 농가의 주력 제품인 흰목이버섯, 흑목이버섯 배양·가공시설을 살펴보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향후 사업계획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상 기자